

향토예비군 창설 35주년 축하 메시지

향토예비군 창설 서른다섯 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역과 직장에서 나라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땀흘리고 계신 예비군 여러분에게 각별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군의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의 노고와 성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예비군이 향토방위의 중추로서 이룩해 온 큰 업적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대 침투작전의 선봉에서, 또한 재해와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내 고향과 이웃을 위해 앞장서 온 예비군의 공헌을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튼튼한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이라크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 핵문제도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와 참여정부는 300만 예비군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변함 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이 고비를 넘어서면 대한민국은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당당히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과 뜻을 한데 모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갑시다.

향토예비군의 더 큰 발전과 예비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